경농, 2027년 Kick-Off 대회, 새해 도약 결의



▲2027년 Kick-Off대회 개최

㈜경농(대표이사 이용진)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2027년 Kick-Off 대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층 더 큰 고객감동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고객 마케팅 성과를 점검하고, 2027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본부와 지점 간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 마케팅본부 및 전국 14개 지점 영업·마케팅 조직 임직원 약 1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한계없이·결점없이·패배없이' 라는 슬로건으로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 ▲2027년도 신제품 세미나 ▲지점별·팀별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농은 이날 2027년 마케팅본부 슬로건으로 '무한(無限)·무결(無缺)·무패(無敗)'를 선언했다. '한계 없이 도전하고, 결점 없이 실행하며, 실패 없는 고객 마케팅 추진'을 통해 이상기후와 돌발 병해충 발생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현장 밀착형 영업·마케팅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제품 세미나 세션에서는 2027년 영농 시장을 선도할 주요 신제품의 차별화된 약효와 생력화 제형 특장점을 심도 있게 공유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각 지점과 본사 담당자들이 지역별, 작물별 맞춤형 마케팅 성공 전략과 현장 기술 지원 확대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하며 조직의 결속력과 실행 의지를 한층 끌어올렸다.

(주)경농 장성식 마케팅본부장은 "기후 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더욱 복잡해지고 농업 현장의 요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무한·무결·무패의 정신으로 신물질·신규계통 신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끌고,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더 큰 고객감동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농진청,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경계' 격상

진단·역학조사·긴급방제 통합 대응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16일부터 차장 중심의 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바이러스 진단부터 감염 경로 조사, 긴급방제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책상황실은 ▲상황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대응팀 ▲바이러스 정밀 진단을 담당하는 분류·진단팀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팀 ▲현장 방역을 지원하는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된다. 특히 농촌지원국 과장급을 중심으로 공적방제 진행점검팀을 별도 편성해 지역별 방제 명령 시행 현황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방역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손실보상 분석팀과 농가 예찰 요령 안내, 민관 공동 방역망 구축을 담당하는 홍보팀도 운영한다.

대책상황실은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되면 정밀 진단과 역학조사, 긴급방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바이러스 발생 지역의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상황실 운영과 위기 대응 단계를 격상한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매일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형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발생 초기 신속한 발견과 신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인 만큼 농가에서는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병 발생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경기도청 제공

NH농협금융, 14년째 이어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이찬우 회장·임직원, 홍천 왕대추마을서 김장 봉사활동

NH농협금융(회장 이찬우)이 14년째 자매마을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을 통해 농촌 상생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NH농협금융은 지난 13일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왕대추마을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찬우 회장과 금융지주 봉사단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간담회를 통해 농촌 현안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장김치는 영귀미농협(조합장 허남영)의 배송 지원과 금융지주 봉사단의 운반 작업을 거쳐 16일 복지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금융지주는 2013년 왕대추마을(좌운1리)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올해까지 14년째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김치를 담가 장애인과 독거노인, 어린이,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이웃 나눔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지역뿐 아니라 자매마을 인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김장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찬우 회장은 "자매마을과의 오랜 협력을 통해 농촌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선 좌운1리 이장은 "농협금융이 구매한 마을 농산물로 함께 담근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주민들도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우리 농산물 기부와 수확기 일손 돕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NH농협금융 이찬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박성헌 경영지원부장(왼쪽에서 첫번째), 영귀미농협 허남영 조합장(왼쪽에서 세번째), NH농협은행 이명호 강원본부장(우측에서 첫번째)과 봉사단이 마을주민들과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농진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주기업 매출 692억원 … 2025년 대비 13% 증가

입주기업 29개 사 중 23개 사 성과 공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12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익산시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2026년 하반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주기업 간담회 및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입주기업 29개 사 중 23개 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익산시, 농진원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농진원에 따르면 올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약 6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고용 인원은 253명으로 38명 늘었으며, 투자유치 61억 원, 수출 220만 달러, 기술이전·특허·인증 등 기술성과 89건을 기록했다. 캠퍼스 입주율은 100%를 달성했다.

행사 첫날에는 AI 기반 한약 제조 자동화 시스템 개발기업 ㈜오너브 정원철 대표가 창업과 투자유치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메디코스바이오텍, ㈜한솔루트원, 코트그린, ㈜팡세 등 4개 기업이 매출·투자·수출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농진원은 2027년 기술개발과 장비활용 지원을 벤처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협업, 그린바이오 창업 경진대회 신설, 입주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날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들이 지역 인재 확보와 교통·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자금 조달, 인허가 비용, 생산시설 구축 등의 어려움을 건의했다. 농진원은 익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석형 원장은 "입주기업의 기술이 제품과 매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익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